목차

신년인사

04 **법륜스님 인사말**

해외소식

06 **나마스떼, 둥게스와리**
나는 괜찮습니다 | 최연정

09 **살라맛, 민다나오**
아침에 일어나면 삶이 다 감사해집니다! | 최정연

12 **쭘리읍쑤어, 캄보디아**
학교 준공식, 마을잔치가 되다 | 박주선

긴급구호

15 **인도네시아**
힘내요! 인도네시아 | 최기진

특집기획

20 **필리핀 JTS 역사**
민다나오, 평화와 미래를 위한 학교 세우기 | 편집팀

국내소식

24 **JTS 송년캠페인 | 편집팀**
아시아어린이 빈곤퇴치를 위한 JTS 송년캠페인
죽어가는 생명 살리며 한 해를 보냅니다

28 **JTS와의 특별한 만남**
적은 돈이지만 누군가에게 무한한 가치 있다는 자체가 아주 큰 감동

나눔회원소식

32 **활동터 소식**
인도 • 국내

36 **나눔회원 알림판**
새나눔회원 • 특별후원금 • 나눔저금통 • 명단확인란

펴낸날 2010. 1. 11 **펴낸이** 법륜 **만든이** 김애경 **펴냄터** JTS **도운이** 강선미, 김옥희, 이재경, 서동우, 윤영실, 쁘리앙카 | 이미경, 박지현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전화** (02)587-8756 /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or.kr **홈페이지** www.jts.or.kr

제이티에스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에도 하루하루가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미디어법 개정이나 4대강 개발 사업에 대한 찬반의 무성한 논란들이 있었고, 용산참사, 노무현 · 김대중 전 대통령들의 서거, 쌍용자동차의 노조파업 등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고, 북한의 핵 실험 강행과 개성공단의 폐쇄위기, 현대아산직원의 북한 억류 등 대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국내외로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그 대책에 부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 가운데도 여러분께서는 기아, 질병, 문맹퇴치라는 인류애를 조용히 실천하고 있는 저희 JTS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거리모금이나 캠페인, 돼지저금통, 인터넷 홍보, 정기후원을 통해 ‘나눔’이란 소중한 마음을 내주시고 실천해오셨습니다.

덕분에 사업장이 있는 인도와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그리고 북에 있는 동포들에게 따뜻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수자타학교에서는 현재 2,800여명의 학생들에게 무료교육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17개 유치원에 1800명의 유치원생들이, 초등학교 1곳과 분교 2곳에서 1,0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인도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마을마다 힌디클라스를 열어 주부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가게 후원으로 아자드비가 마을에 불가촉천민 5개 마을의 초등학교 1,2년 학생들이 공부할 수자타아카데미의 분교를 지었고, 라흘나가르 마을에는 유치원을, 자그디스푸르 마을에는 유치원 시설 증축이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1년에 10,000명 이상의 환자에게 무료치료는 물론이고, 유치원과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과 극빈자들에게 구충제와 영양제, 관절염약, 눈약, 바셀린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결핵환자에게는 약품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제공하고 있고, 보건위생교육 진행과 서울로터리클럽 지원으로 엠블런스를 갖추게 되어 이동진료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성껏 모아주신 옷은 필요할 때 적절하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개발 프로그램으로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해 둥게스와리의 11개 마을에서 유치원 정비와 배수로, 농수로를 정비하고, 도로보수와 농업용수 펌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식량부족 상황이 발생하면 공공활동을 통해 쌀과 달, 머스타드 오일을 지급하고, 또한 가난하고 가축이 없는 60여 가구에 염소새끼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새해인사와 더불어 지난 한해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오지 38곳에 학교를 지어 아이들이 교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농업기술훈련센터를 짓고 있는데, 올해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무나이 핀둘루난의 까나안, 파곰퐁 지역에 학교와 화장실을 건축하고, 블루안, 키다마 지역에서는 교실확장공사를 하고 책걸상과 문구류, 우산과 우비, 가방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그전 해 농기계를 지원했던 스리랑카 중북부의 아누라다푸라의 5개 마을에 농기계기술자를 파견하여 현지인에게 그 사용법을 지도하였고, 농업기반시설인 관개수로, 저수지 복구, 농업용 우물을 파서 건기(5,6월)에 거의 농사를 짓지 못하던 200에이커의 땅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였고, 우수품질 종자 지원과 가축(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프레이벵 주의 콕크라상과 콕로빙 마을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평안남도와 강원도의 고아원과 양로원, 특수학교 및 애육원, 육아원, 소학교 어린이와 평안남도와 강원도, 자강도 희천시 소재 발전소와 평남 광산 등에서 노동하고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과 노동자들에게 이불과 의류, 신발, 양말, 가방, 아토피 크림 등 생필품과 구급함 1만 세트 등을 3차례에 걸쳐 나누어보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거제도에 소재한 장애우들의 재활복지시설인 애광원 식구들과 함께하는 경주소풍과 두북의 마을어른을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부지역의 지진피해지역 및 필리핀 마닐라의 태풍 오노이 피해지역에 사건 발생 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물품들을 배분했습니다.

한국 제이티에스는 원래 아시아의 빈민국 15개 국가에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계속 사업하고 있는 곳은 인도와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그리고 북한 등 5곳입니다. 앞으로는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등에도 계획을 세워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JTS는 아시아 지역의 가장 모범적인 어린이 구호단체가 됨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으로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후원금과 물품이 가장 효과적으로 잘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지난 한해의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의 새해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냉랭한 겨울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에도 변함없는 따뜻한 후원 기대하면서 인사드립니다.

JTS 이사장 법륜 합장

인도에서는 2,800여명의 학생들에게 무료교육이 행해지고, 아자드비가마을에 수자타아카데미 분교가 지어졌고, 지바카병원에선 정기적인 이동진료가 진행됩니다.

필리핀에서는 지금까지 오지 38곳에 학교를 지었고,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선 콕크라상과 콕로빙 마을에 학교를 짓고, 북한에는 평안남도와 강원도의 고아원과 양로원, 특수학교 및 애육원, 소학교 어린이와 평안남도와 강원도, 자강도 희천시 소재 발전소와 평남 광산 등에서 노동하는 취약계층에게 생필품과 구급함 1만세트를 보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인도JTS에서는 지난 12월 5일 싸이월드 회원들의 후원으로 둥게스와리 인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오일, 달(밥에 넣어 먹는 양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홀로 사는 노인, 고아, 장애인 등으로 주로 구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일가족이 모두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가족 모두가 장애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열다섯 살이에요. 아니, 사실은 잘 몰라요. 몇 살인지 묻길래 잘 몰라서 대답을 망설이다가 주변에서 열다섯 쯤 되었을 거라고 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기서는 살면서 나이를 따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들 제 나이를 잘 모르지요.

겨울밤에 여기는 되게 추워요. 몸을 덥힐 것이라곤 얇은 홑이불뿐인데,
더러 아침에 일어나 보면 죽어있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해요.

8년 전인가, 그러니까 내가 일곱 살 적에 큰 오빠가 죽었습니다. 오빠는 소나 염소에게 풀을 먹이는 목동 일을 했는데, 지금껏 살아있었다면 키가 이만큼은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오빠 나이는 열 살 정도였을 거예요. 아빠는 아팠고, 엄마 뱃속에는 아기가 있어서 큰 오빠가 아니면 끼니를 잇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빠는 죽었지요. 아기를 세상에 나게 하려고 그랬던가 봐요. 사람들 말로는 굶어 죽었다고 하지만…. 하기는 참 먹을 게 없었어요. 아기를 낳은 엄마는 큰 오빠가 죽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아빠도 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갓난아기도 돌보지 않아서 내가 아기를 보살펴야 했어요. 그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기는 불면 날아버릴 것 같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한 팔로도 꼭 안을 수가 있었거든요.

오빠가 죽고, 아빠는 구걸을 나가고, 동생을 품에 안은 나도 밥 동냥을 하러 다녔지만 항상 먹을 게 모자랐습니다. 오빠가 죽은 지 일 년쯤 되었을까. 엄마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오빠와 엄마가 죽고 나자 아빠는 구걸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더 많이 아팠어요. 밥 동냥을 하러 열심히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날이 갈수록 아빠는 더 아프기만 했어요. 밥을 빌러 마을을 돌아다니다 때로 한 마을에 사는 숙모를 만나기도 했어요. 오래 전부터 자식 없이 혼자 사는 숙모는 우리처럼 역시 구걸하는 것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삼촌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고 하고요.

아빠도 곧 죽었습니다. 잘 못 먹어서 병이 나 죽은 거래요.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냐고들 묻는데, 정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건 엄마 · 아빠가 계실 적이나 안 계실 적이나 항상 밥을 빌러 다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랬는데도 어린 동생과 나, 이렇게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엄마 · 아빠가 죽고 나서는 가야에 살고 있는 삼촌이 이사 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는 크고 작은 집안일을 하고, 갓난아기였던 동생은 유치원에 다닙니다. 나는 읽고 쓸 줄 모르

소니

지만 동생은 글도 제법 읽을 줄 알아요. 이런 동생이 날아가지 않고 지금까지 곁에 있어 주어서 다행이에요.

이제는 예전처럼 배를 자주 곯지는 않아요. 삼촌과 숙모가 돌봐주고, 또 얼마 전에는 수자타 아카데미에 가서 나와 동생 몫으로 쌀 20kg과 밥에 넣어 먹는 달이랑 오일도 받았거든요. 요즘은 수자타 아카데미서 받은 쌀로 밥을 지어 먹고 있습니다. 아참, 쌀을 받으러 수자타 아카데미에 갔다가 거기서도 숙모를 만났습니다. 지금 동생과 나를 돌봐주고 있는 숙모 말고 혼자 살고 있는 다른 숙모 말이지요.

숙모는 더 주름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는 눈이 아프다고 합니다. 또 겨울철이 돼서 꽤나 춥다고도 해요. 몸도 쇠약한데다 숙모 집엔 방문도 없으니 아마 그럴 거예요. 겨울밤에 여기는 되게 추워요. 몸을 덥힐 것이라곤 얇은 홑이불뿐인데, 더러 아침에 일어나 보면 죽어있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해요. 하여간 오늘은 숙모도 밥을 빌러 나가지 않고 학교에서 받은 쌀로 밥을 짓고 있을 겁니다.

쌀을 받으러 학교에 갈 때 JTS에서 새로 나눠준 까플라 카드를 가지고 갔어요. 역시 읽을 줄은 모르지만 나와 동생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이 카드를 갖고 있으면 옷을 준다고 해서 이 곳 사람들은 까플라 카드라고 불러요. 이 카드를 가지고 지난번엔 겨울옷과 천을 받기도 했어요. 숙모 앞으로도 하나 있을 거예요.

"아즈 틱 해?" "아즈 틱 해." 네, 오늘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저께도 괜찮았어요. 집안일에 게으름 피운다고 삼촌한테 가끔 혼쭐이 나는 것 말고는요. 꿈이 뭐냐고 묻는데, 이런 질문은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싶다기보다 몇 년 후면 결혼을 할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건 모르겠지만 보고 싶은 건 있습니다. 동생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학교에 다니면 뭐가 좋은지는 자세히 몰라요. 그래도 글을 읽고 제 이름을 쓸 줄 아는 동생 모습을 보면 흐뭇합니다.

활짝 웃는 모습이 예쁘다고 해서 오늘은 좀 많이 웃었습니다. 막 웃으려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내일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내 이름은 소니입니다.

글 최연정 | 인도JTS 마을개발 담당

아침에 일어나면 삶이 다 감사해집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사업장에서

제 3차 제이티에스 민다나오 사업장 마을리더 회의

2009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가가얀데오로 시 시솔린 마지스에서 제 3차 제이티에스 민다나오사업장 마을리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8개 지역에서 선생님들도 참여하셔서 참가자는 46명이었습니다. 주제는 민다나오 평화와 발전을 향한 리더십 향상이었고, 다몰록 시장 총코와 송코의 다투 미끼타이님의 연설로 리더십 개발과 다양한 종교 · 문화의 조화를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모임에는 참가자들의 간단한 공연도 있어서 한층 더 유대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7일 키다마, 8일 불루안과 파곰퐁 학교 준공식

12월 7일은 부키드논 주 다몰록 군에 속한 키다마에서 8일은 불루안과 파곰퐁에서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키다마는 마긴다나오 무슬림이 35%, 마노보 원주민이 65%로 구성된 마을이고, 불루안은 95%가 마노보족, 파곰퐁은 100%가 마긴다나오 무슬림입니다.

키다마 65명, 불루안 179명, 파곰퐁 85명의 학생 연령층의 아이들이 있으며 대부분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 나이가 든 아이들은 5~7km 떨어진 학교까지 걸어다니기도 하지만 대개 중도에 그만두게 되어 부모님들을 안타깝게 했는데 이번에 학교가 준공되고 내년 6월에 정규교사가 파견되면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다나오 블루안학교 전경

이번 준공식에서 JTS 이사장인 법륜스님과 필리핀 JTS 대표인 이원주님께서 학교 준공의 의의를 말씀하시고, 학교 건설에 자원봉사로 일한 마을 주민들과 지방 정부 다몰록 직원들의 수고를 격려하셨습니다.
법명스님과 유애경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동요와 즐거운 춤을 선물해주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멋진 사진을 찍어주신 노재국님, 비디오 카메라로 준공식 프로그램을 열심히 찍어주신 홍성길님, 통역을 맡아주신 이규섭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바쁜 회사 일정으로 불루안까지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시면서도 사람들을 일일이 챙겨주시는 이규초님, 긴급구호와 제이티에스 해외사업장을 다니며 늘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을 다니시며 고생하시는 박지나 대표님, 그냥 맨몸으로 걸어다니기도 바쁜 민다나오에서 늘 스님 시봉하시느라 항상 바쁘신 최말순님,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다니신 박명화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 그늘 한 점 없는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지열과 태양열을 아래위로 받으며 다니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그늘 한 점 없는 다몰록 지역의 뜨거운 햇살 아래 간단한 대나무 모자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자식들을 위해 일사병으로 아파가면서도 학교를 지어준 키다마의 부모님들, 마르고 갈라진 흙을 파내어 나르며 교실 바닥 만드는 어른들을 도와준 불루안의 아이들과 부녀자들, 공사하다가 다쳐 퉁퉁 부은 다리로 공사장에 나와 사람들을 챙기던 파곰퐁의 마을 리더 아바스……. 이 모든 분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아픔과 기쁨으로 준공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해라도 때가 되면 넘어갑니다.

공사 모니터링을 하러 다닐 때는 푹푹 지는 지열과 따가운 햇살 때문에 늘 머리가 아팠습니

일사병으로 아파가면서도 학교를 지어준 키다마의 부모님들,
공사하다가 다쳐 퉁퉁 부은 다리로 공사장에 나와 사람들을 챙기던 파곰퐁의 마을리더 아바스…….

다. 비가 오면 땅은 진흙길이로 변해 들러붙은 흙으로 신발은 군화처럼 무거워져서 걷기가 힘들고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내가 왜 이리 고생하며 다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던 곳입니다.

작년 12월 답사 때부터 해서 거의 일 년 동안 계속 이 지역을 다니면서 알게 된 것은 '아무리 강한 해라도 때가 되면 넘어간다' 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렬하는 태양도 저녁에는 노을이 되어 하늘을 물들이고, 그 길에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 시골길에서 가끔은 무지개도 보고, 저녁에 돌아오는 차 속에선 별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아무리 살기 어려운 곳이라 하더라도 젖먹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편안히 자라고 있고, 아직 학교 다닐 나이의 아이들도 어른들을 도와서 일하고 있고, 아무리 수원지가 멀어도 매일 먹을 물을 길어다 나르는 아버지들이 있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수건 하나 두르고 노래 부르며 옥수수 수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렇듯 먼 길을 걸어 힘들게 모니터링을 마치고 녹녹한 몸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사는 것이 다 감사해집니다. 걸어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흐르는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성원을 그렇게 만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낌없는 정성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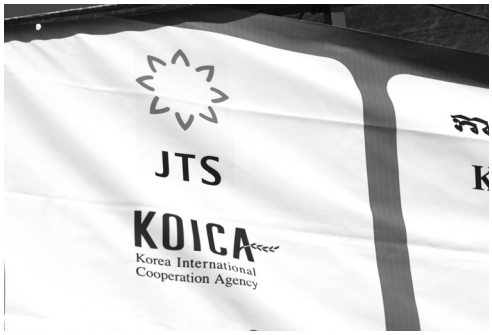
글 최정연 | 민다나오JTS

학교 준공식, 마을잔치가 되다

12월 14일 콕로빙과 스와이쿤 주민들의 손으로 지은 학교에서, 그리고 16일에는 콕크라상마을에서 JTS 이사장 법륜스님, JTS대표 박지나님 , 필리핀JTS대표 이원주님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있었다.

처음 학교를 짓기 시작했을 때는 한창 농사일로 바빠지기 시작한 때였다. 가난한 마을주민들은 우기에 지은 농사로 6달의 건기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학교건축보다는 농사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학교를 끝까지 지었다. 때로는 농사일과 학교건축을 동시에 할 수 없어서 천천히 짓기도 하고, 많은 일손이 필요할 때는 농사일을 잠시 멈추고 힘을 모으면서 함께 학교를 조금씩 지어나갔다. 학교 완공을 눈앞에 두고 마무리 공정인 지붕공사에 큰 문제가 생겨 재공사를 해야 했을 때는 가장 바쁜 추수철이었으나 잠시 농사일을 멈추고 모두가 지붕공사에 협력했었다.

이렇게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농사일과 함께 학교를 짓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들



고 벅찬 일인가를 잘 알기에 안쓰러워했던만큼 준공식을 맞으면서 내 마음은 자랑스러움으로 뿌듯했다.

세로 9미터 가로 24미터의 교실 3칸짜리 단층 학교는 자랑스러움, 뿌듯함, 자부심이었다. 주민들 손으로 직접 페인트칠한 학교는 빛깔이 고왔고, 그러나 군데군데 있는 흠집과 미흡함은 오히려 그들의 노고와 열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뜨거워졌다.

콕로빙과 스와이쿤 두 마을 아이들은 이제 가까운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주민 100여명이 참석하고, 학교 아이들 90명, 그리고 지역정부의 책임자과 교육청에서 함께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하해주었다. 이날 법륜스님은 주민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사가 시작되어 학교가 완공되기까지 학교 건축에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셨다.

준공식이 끝난 후 마을에서는 음식을 준비하여 흥겨운 잔치를 함께 했다. 정성스레 지은 밥은 윤기가 나면서 아주 고소하였고, 주민들과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그 순간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12월 16일 오후 콕크라상 학교에서 준공식이 있었다. 이곳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난하다. 그러다보니 준공식을 끼니시간에 맞춰서 하게 되면 음식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주민들에게 갈 것 같아 오후에 일정을 준비했다. 잔치는 음식과 음악이 함께 있어 흥겨운 것인데 가난한 마을에 준공식이 부담될까봐 오후에 진행하는 게 흥겨움을 덜하는 것 아닐까 우려했는데, 학교가 있는 절에 들어 선 순간 '아!' 하는 감탄의 소리가 절로 터져 나왔다. 손가락 크기의 천을 이쁘게 오려서 바느질로 하나하나 연결하여 절 입구부터 학교까지 장엄해 놓은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학교 앞 넓은 마당에는 의자와 천막을 준비하

여 주민들이 일찍부터 이사장님과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사장님은 법당에 참배하고 주지스님께 학교부지 기증에 감사 인사를 하고 주민들과 함께 그 동안 학교 건축에 많은 애써주신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참석한 110명의 아이들은 감사의 마음을 합창으로 전했다. 작은 입을 모아 큰 소리내어 노래하는 아이들 모습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두 손 모아 이사장님을 따라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인사를 전하는 아이들의 소리는 행복했고,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학교 다니겠다고 다짐하는 소리는 우렁찼다.

박지나 대표님이 가져온 제이티에스 가방과 문구류를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할 때, 설레임과 기대로 활짝 웃는 아이들 표정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행복하였다.

준공식을 마무리하면서 준비한 사탕을 이사장님과 주지스님께서 한 주먹씩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마음껏 웃고, 행복하게 떠들면서 손안에 가득한 사탕을 받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열심히 공부하여 캄보디아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였다.

글 박주선 | 캄보디아 JTS

힘내요! 인도네시아

2009년 9월 30일 현지시간으로 새벽 인도네시아 서 수마트라를 강타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1천여명 이상이 숨지고 3천여명이 다쳤으며 21만여채의 가옥과 학교, 회교사원 등이 붕괴되거나 파손됐다. JTS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피해상황을 수집하여 10월 9일에서 16일까지 현지에 활동가를 파견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였다. 국내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긴급구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전국적인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인터넷모금 등을 통해 성금을 모금하여 인도네시아의 지진피해 복구를 도왔다. 지난 10월 28일에 다시 지진피해현장에 JTS의 박지나 대표님과 최기진님이 파견되어 많은 피해지역 중에서도 지원받지 못해 더 힘든 지역사람들에게 구호품을 분배했다. 두 구호 요원의 11월 5일부터 8일까지의 활동을 따라가보자.

마가시~ (고맙습니다!) 이들의 웃음에 힘든 순간은 다 날아가버리고

2009년 11월 5일 루북이뿌 빠리야만, 나가르 수누르 빠리야만

많은 분들의 정성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하고, 현지인의 도움으로 시중에서 7,500루피야/kg 하는 질 좋은 쌀을 5,900루피야에 구입하여 지원하였다. 또 아직 우기라 하루에 한 번씩 비가 내리는 바람에 집이 무너지고, 집이 있다해도 기둥과 벽이 금이 가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밤이면 집 밖에서 잠을 청하는 주민들을 위해 임시로 비를 피해 쉴 수 있는 텐트를 구입, 지원하였다.

루북이뿌 빠리야만은 이번 지진으로 90%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나 외국 단체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90% 이상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여 형편이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이 마을 197 가구에 가구별로 쌀 20kg과 텐트를 지원하였다.

구호품을 받아가는 마을 주민들은 반가운 얼굴로 '마가시(고맙습니다), 마가시.' 하였다. 주변에 모여들었던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땡큐, 코리아!' 하면서 좋아하고 이마에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께서도 수줍은 새색시처럼 '마가시.' 하면서 지나가신다. 소중한 정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음에 현장에서 바라보던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힘든 순간이 이들의 웃음 한 번에 다 날아갔다.

또 나가르 수누르 빠리야만은 이번 지진으로 297가구 중 290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로부터 거의 지원은 받지 못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가구당 쌀20kg씩을 지원하였다. 사전 준비가 덜 되어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으나 마을 리더가 입구에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경찰들이 마을주민 명단을 호명하면 그 주민이 쿠폰을 제출하고, 그럼 JTS 자원봉사자와 경찰, 마을 주민이 명단과 쿠폰을 대조하여 구호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시간 20분이 소요되어 좀 더디긴 했어도 마을 주민들이 모두 공정하게 구호품을 받아갈 수 있었다.

작은 정성이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줄 수 있습니다.

11월 6일 빠꾸달람 150가구, 시카부 87가구, 깜풍 아팔 32가구에 가구당 쌀 20kg 지원

빠꾸달람 : 아침 8시에 도착하니 넓은 운동장에 마을주민들이 텐트를 쳐놓고 구호품 분배를 위한 준비를 해놓았다. 잠시 후 쌀을 실은 트럭이 도착하고, 1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쌀을 텐트 안으로 옮겼다. 텐트를 낮게 쳐서 약간 불편했으나 마을리더가 구호품을 밖에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몰래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했다. 사람들이 텐트 주변으로 모여들었으나 줄을 서지 않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정렬시키고, 준비가 완료된 후 분배를 시작하였다. 쿠폰을 받고, 명단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니 2시간이 지나서야 분배가 마무리되었다. 분배가 마무리될 즈음 태양이 머리 위를 내리쬐고 있어서 어느새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시카부 : 우리의 분배 방식을 설명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이 마을에서는 박지나대표님이 직접 분배에 참여하였다. 사전에 쿠폰에 이름과 번호를 적어 가구별로 직접 나눠준 쿠폰을 회수하는 사람이 번호만 불러주면 명단에서 체크하는 방식으로 접수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바로 구호품을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니 20분 만에 분배가 마무리되었다.

깜풍 아팔 : 이 마을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던 44가구에 한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현장에 도착하니 달구어진 콘크리트 열기로 후끈했다. 어제 미리 연락하고, 오늘도 이동하면서 몇 시에 도착한다고 연락했지만 사람들이 7시부터 기다리다 돌아갔다고 했다. 바로 방송을 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모인 사람들을 정렬시킨 후 분배를 시작했다. 분배 방식은 시카부에서 진행한 것처럼 쿠폰을 회수하여 접수하고 바로 구호품을 나눠주는 방식이었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쌀 12가구분이 남아서 마을리더가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 남겨달라고 부탁하였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쿠폰을 나눠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다음 장소로 바삐 움직여야 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12가구분은 남겨놓지 않고 다음 장소로 출발하였다. 한낮의 태양은 너무 뜨겁다. 햇볕 아래서 움직이니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버린 옷이 몸에 달라붙어 움직이는 것이 불편할 정도였다. 그래도 정부로부터 2-3일에 쌀 2kg, 3kg씩 받던 사람들이 20kg씩 안고서 환하게 웃는 모습에 더위도 잊어진 듯했다. 작은 정성이 힘겹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줄 수 있음에 고맙다.

마을주민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마칠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11월 7일 북킷 말린당, 깜풍 글란풍

분배해야할 지역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4개 마을을 방문해야했기에 일찍 서둘러야했다. 새벽 5시30분에 구호품이 보관되어 있던 중국절(Wihara Buddha Sasana)로 가니 현지 자원봉사자와 용달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부지런히 구호품을 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갈 길이 멀고 바빠서 아침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탄 차량과 텐트, 책가방, 밥솥, 후라이펜을 실은 트럭과 학용품과 교복을 실은 용달차 세대가 나란히 달렸다.

분배해야할 지역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4개 마을을 방문해야했기에 일찍 서둘러야했다.
새벽 5시30분에 구호품이 보관되어 있던 중국절로 가니 현지 자원봉사자와 용달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어렵게 살아가는 100가구에게만 전달하기로 하였다. 부지런히 서둘러서 마을 주민들에게 쌀20kg씩 나눠주었다. 다행스럽게도 구호품 나눠주는 것을 마치고 차를 타고 부키팅기로 돌아오는데 비가 쏟아졌다.

북킷 말린당 : 308가구에 가구별로 쌀15kg, 밥솥, 후라이펜 분배

8시 50분에 도착하니 주민들이 구호품 앞에 앉아 있었다. 박 대표님이 구호품에서 사람들을 뒤로 물러서게 한 후 5줄로 차례대로 앉혔다. 그래도 사람들은 구호품 앞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직접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줄이 서있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줄을 세워 정렬한 후 분배를 시작했다. 마을 주민가운데 15명이 자원봉사로 배분하는데 함께 하였다. 11시에 구호품 분배를 시작하고 줄을 서서 차례차례 받아가니 30분 정도 만에 구호품 분배가 끝났다.
이어서 학교로 이동하여 학용품 분배를 하였다. 학교에 가니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교사들과 함께 학용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나눠주기 시작했다. 모두 마치고 나니 1시 30분이 되었다.

깜풍 글란풍: 100가구에 가구별 쌀 20kg씩 분배

가는 도중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혹시 분배를 하는데 비가 오면 쌀을 나눠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다. 이 마을에서는 지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하루

11월 8일 루북바숭 7개 학교 807명, 빠리야만 2개 학교 296명에게 학용품(교복, 책가방, 노트 각 3권, 연필2, 볼펜3, 지우개, 연필 깎기1, 자1, 필통1) 전달, 루북바숭 200가구에 쌀 4,000kg 전달

루북바숭을 가기 위해서 44구비의 산길을 돌아서 가야했다. 오늘 구호품 분배현장으로 가는데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산상 호수에 비치는 햇살과 산허리에 걸린 구름조각 등이 시야에 들어왔다. 아감 지역의 루북바숭 관공서에 도착하니 지역 책임자인 밤빙씨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RCTI 채널 1번에서 기자가 취재를 나왔고, 2명의 오피셜 기자가 동행하게 되었다. 이어서 200가구에 나눠줄 쌀 4,000kg을 실은 트럭이 도착하였다.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먼저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기로 하였다. 가부아나우학교는 40분 정도 시골길로 달려가야 만날 수 있었다. 도착을 하니 아이들이 임시 텐트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가지고 간 구호품을 정렬하고 준비가 완료되자 신속하게 학생들에게 분배했다. 받

> 루북바숭 7개 학교 807명, 빠리야만 2개 학교 296명에게 학용품(교복, 책가방, 노트 각 3권, 연필2, 볼펜3, 지우개, 연필 깎기1, 자1, 필통1) 전달

아가는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였다.

쌀을 나눠주기 위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다. 밤방씨에 의하면 아감 지역의 루북바숭은 정부나 외부 단체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도 좋으니 지원해 달라고 하였다.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구호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밤방씨에게 루북바숭에서 가장 어려운 200가구에게 쌀을 20kg씩 지원하기로 하고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루북바숭의 전체 5개 조롱(한국의 면 단위)에서 형편이 어렵다고 선정된 200가구에게 쌀을 전달하게 되었다. 전날 밤방씨에게 구호품 분배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었고, 우리의 설명대로 쿠폰을 받은 사람들이 미리 분배 장소에 대기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도 미리 대기하고 있어서 일이 쉽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200가구에게 구호품인 쌀을 20kg씩 분배하는데 20분 만에 끝낼 수 있었다.

쌀 분배 장소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는 아낙 아이아 다독학교에 학용품을 전달하러 갔다. 학교에 도착하니 학생들이 학생 대표의 구령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고,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학용품을 나눠주는데 참가하였다. 교복과 가방 그리고 학용품을 받아든 학생들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제자리로 돌아가서는 주변 친구들과 자기가 받은 것을 비교하고 얘기하면서 좋아하였다. 아낙 아이아 다독학교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는 가라가한학교에 도착하니 여기도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모두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니까 분배 시간이 많이 절약되었다.

빠꾸달람 학교에 도착하니 라당 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두개 학교 학생 296명이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내리자마자 그 모습을 담으려고 카메라를 들고 가니 아이들이 모여든다. 줄을 서서 차례로 기다리던 이전 학교와 비교를 하니 분배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구나 싶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박지나 대표님의 지휘아래 학용품 분배 방식과 위치,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는 등 주변을 정렬한 후 분배를 시작하였다. 대표님이 통역 자원봉사자를 통해 자기반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줄 서있는 순서대로 배분하자고 설명하였다. 선생님들도 이해를 한 후 차례대로 배분하니 훨씬 쉽고 빠르게 진행되어 30분 만에 분배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환한 웃음으로 즐겁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조금의 희망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주어진 일정 속에서 분배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웠다.

우리는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 일부 주민들에게만 구호품을 나눠줄 수 있었다. 많은 지역을 오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지진 피해로 힘겨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힘내라고 외쳐본다.

글 최기진 | JTS

민다나오, 평화와 미래를 위한 학교 세우기

–2004년(2)–

편집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꿈, JTS를 만나 현실이 되다.

민다나오에서 평화를 위해 활동을 시작한지 두 번째 해인 2004년에는 무슬림 지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라나오델쑤르의 주도인 마라위와 분쟁이 심했던 발린동 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하였다. 이 지역은 지난 시기 무슬림과 정부군 사이에 분쟁이 가장 격렬했던 지역으로 마닐라에 살고 있는 필리핀 사람뿐만 아니라 민다나오에 살고있는 현지 주민들조차 가기를 꺼리는 지역이었다. 무슬림들이 너무 무섭다는 편견에 누구도 다가서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지역은 필리핀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소외되었던 것이다. 그런 곳에 JTS는 학교 건축 사업을 시작하였다.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이었던만큼 외부의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JTS와 만나게 되어 지역 평화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학교 건축이 시작되었다.

까나안 지역은 무슬림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던 곳이었다. 무슬림 지역의 사령관이었던 써니보이 폰디가 기독교도인 앨리스와 결혼하면서 분쟁은 줄어들게 되었고, 그즈음 JTS와

만나게 되어 지역 평화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학교 건축이 시작되었다.

2004년도 사업 살펴보기

1) 딸라각 특수 학교 기숙사

북키드논 주의 유일한 장애인 학교이다. 딸라각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52명의 장애아들이 학교에서 떨어져 있는 가정에서 다니느라 겪는 불편함을 고려하여 학교 바로 옆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설립하였다. 이 기숙사에는 남학생, 여학생들이 따로 기거하면서 편하게 생활하도록 설계되어 부엌과 화장실이 각각 실내에 갖추어져 있다.

2) 마라위와 발린동 지역의 유치원

순수 무슬림 지역인 구임바, 말리모노, 서부두레이, 디바로산 등 4개 마을에 4개의 유치원을 건축하였다. 한 칸짜리 콘크리트 건물과 화장실, 그리고 문구류, 교과서, 의류 등을 지원하였다. 각 유치원마다 4-6세의 어린이 25명에서 40명 정도가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3) 까나안 마을 학교

까나안은 민다나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지역으로 부키드논 주와 라나오델쑤르 지역의 경계지역이다. 그래서 두 주정부로부터 기본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주민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고 원주민은 소수인 지역으로, 12개 마을이 모여 있는 이 지역은 전 모로이슬람해방전선의 사령관이 그 지역 목사의 딸을 만나 결혼하면서 비교적 평화로워진 곳이다. 까나안은 가장 가까운 학교가

11km의 거리로 10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인근 띠가아손에서 추진 중인 JTS 학교 건설에 대해 듣고, 써니보이와 앨리스가 JTS에 방문해주기를 요청하였다.
까나안이 속해 있는 라나오델쑤르 주에서는 외부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지원을 받기 위해 부키드논 주로의 편입을 요청했고, 이후 부키드논 주의 딸라각 시청의 협조를 받아 제이티에스와 학교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원래는 교실 3칸을 계획하고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건축비를 아껴서 사용하여 교실 1칸을 추가해 4칸 교실로 완성하여 학생들이 더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JTS에서는 화장실과 운동장도 함께 지었다.
2005년 8월에는 평화캠프가 개최되어 한국 대학생과 필리핀 세비어 대학생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 상수도 시설 설치와 양식장을 만들고 학교 화단도 만들었다. 그리고 마을축제를 통해 교류의 장을 갖고 평화에 대한 학습도 함께 진행하였다.

4) 띠가아손 초등학교

교실 3칸에 200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JTS에서는 자재를 공급하고 마을 주민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래서 한 칸짜리 콘크리트 교실이 완공되어 과밀학급과 다른 학년과 합반해서 수업을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JTS에서는 책걸상을 지원하였으며 다른 교실을 수리하는 동안에는 임시학교건물용 지붕 자재도 제공하였다. 그리고 교사용 숙소겸 사무실 건축도 지원하였다.

5) 오버루킹 마을 학교

이 마을은 산중턱에 자리잡고 있고 가장 가까운 학교가 5km 거리에 있어 150명의 어린이들 대부분은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험한 길을 오르내려야 하고 한적한 곳은 강간의 위험까지 있었다. JTS에서 학교 건축을 위한 마을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참가하여 공사과정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기로 약속하는 열의를 보였다. 지역 주민들은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이미 차별을 겪었기 때문에 학교 건축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갖고 공사과정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 참여하였다. 그렇게 교실 2칸의 목재 건물이 완공되었고 교사 숙소도 생겼다.

서니 보이와 앨리스 이야기

이 마을의 리더는 서니보이이다. 그는 붐바란 지역의 모로인민해방전선 사령관이었다. 어느 날 꿈속에서 그는 한 여인을 만난다. 그러다 한날 이 마을을 습격하였고, 마을에서 목사의 딸을 납치하였다. 납치를 하고 보니 그녀는 그가 꿈속에서 만났던 여인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녀의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요청하였다. 목사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혼을 승낙하였고, 두 사람은 결혼하였다. 현재 부인 앨리스를 만나고 난 후 정부군에 투항하였고, 현재는 정부군 무술교관 자격까지 갖추고 있다. 정부군에 투항한 후 JTS를 만나게 되었으며, JTS의 지원으로 이 지역에 학교를 건축하였고, 한국대학생들의 평화캠프도 진행하였다.

써니보이와 앨리스

아시아어린이 빈곤퇴치를 위한 JTS 송년캠페인

– 전국 85곳 1,000여 명 참석

편집팀

2009년 아시아 어린이 빈곤퇴치를 위한 JTS 송년캠페인이 북쪽 의정부, 파주를 비롯하여 남쪽으로 거제, 광양까지 전국 85곳, 1,000여명이 참석하여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뜨거운 열기로 캠페인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인 인원이 모금함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시린 손을 호호 불면서 5명에서 많게는 30여 명이 모여 아시아의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열성을 가지고 마음을 내어 참여해주신 모든 JTS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 총 모금액 4,000여 만원은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의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2009년 12월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보자.

학교를 짓기 위해 거리로 나선 사람들

12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한국 JTS 주관으로 '밥이 되고 약이 되는 사랑의 학교짓기' 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배우 배종옥, 김여진과 노희경 방송작가가 직접 기획하고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탤런트 한지민, 배종옥, 윤소이, 민효린 등이 참석했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사랑의 학교'를 지어 주겠다는 일념으로 이날따라 더욱 매

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찬바람을 가르며 한 시간가량 자원봉사자들 100여명이 거리를 누비며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커피전문점 탐앤탐스(TOM N TOMS COFFEE) 기업에서 모금현장에서 3천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기부에 동참해 주신 많은 시민 분들과 커피전문점 탐앤탐스(TOM N TOMS COFFEE)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성으로 모아주신 모금액 1,000여 만원은 100% 전액, '사랑의 학교'를 짓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방송 · 연극 · 예술인들의 사회봉사모임인 '길벗'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Love on the street

거리에서 JTS의 모금함과 만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JTS의 거리모금캠페인은 연말이 끝나면 사라지는 풍경은 아니다. JTS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리모금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회원들은 직접 모금함을 들고 명동 골목을 누비며 사람들과 일대 일로 만나서 눈을 맞추고 JTS의 활동을 설명한다. 아시다시피 JTS의 지원자 중에는 연예인도 있다. 한지민 과 배종옥, 김여진 을 비롯해 JTS의 활동에 열정적인 배우들이 직접 작은 모금함을 들고 거리에 나와 사람들과 만난다.

지나가다 이 풍경을 보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것 같다. 한 명씩 보기도 힘든 배우들이 무더기로 몰려 있는가 하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열정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연예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마저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순식간에 몰린 사람들 때문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된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 주며 성금을 기탁 받는다.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JTS 활동을 하며 지니게 된 확신이 이들을 용감하게 만들었다.

누군가의 앞에 나선다는 것은 쑥스러운 일이다. 큰 각오는 필요 없지만, 어떤 확신은 필요하다. JTS의 활동을 옆에서 지켜 보다 보면 선량한 마음에서 비롯된 확신이 얼마나 강한 힘을 만들어 내는지 알 수 있다. 〈마리끌레르 12월호 '오렌지 캠페인에서 발췌〉

“남 도울 돈 있으면 너나 잘 살아” 외면에도

죽어가는 생명 살리며 한 해를 보냅니다

한국JTS 권영숙

세상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옳지 않은 일이면 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이 아무리 비난을 하더라도 옳은 일이면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에 북한동포 살리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은 민족, 종교, 사상, 이념을 뛰어넘기에 한해를 마감하는 빈곤퇴치 캠페인을 지난 12월 23일, 양재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잡고서도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작년 북한동포 돕기 서명운동을 양재역에서 해봤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었기에 장소를 잘못 잡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엄마 혼자 거리모금 할지도 몰라. 흑흑.”

저도 제 딸들이 얼마나 효녀인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큰딸은 모금통 들고 나가는 일은 창피해서 힘들고, 마이크 잡는 일을 하겠답니다. 둘째 딸은 쵸코렛까지 만들어서 캠페인 끝나고 나누기하면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또 큰 딸이 다니는 간디학교 후배도 나왔고, 다른 분도 두 남매를 데리고 오셔서 아이들이 많은 캠페인이었습니다.
외면하며 바삐 가버리고, 손을 내치고 도망치듯 가는 사람들을 보며 지난 날의 저를 만났습니다. 마치 나는 안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도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었기에 한편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고 모금통과 JTS(국제기아 · 질병 · 문맹퇴치기구 Join Together Society) 홍보지를 나눠주는데 누가 제 손을 탁 잡습니다.
하필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제 가게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 분은 북한동포돕기할 때도 제 가게 모금통을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저더러 ‘남 도울 돈 있으면 너나 잘 살아라’ 고 하시던

분이십니다. '남 도울 돈이 별로 없으니 몸으로라도 도우면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말을 꿀꺽 삼켰습니다. 한 대 맞을까봐요.

거리모금을 하면서 모금함에 천원이든 백원이든 넣어주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니 JTS 홍보지를 받아만줘도 90도로 인사를 꾸벅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여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감동입니다.
캠페인에 나와 봉사해주신 분들은 대체로 50대와 60대가 많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면서도 정성스럽게 인사를 하시는 봉사자들을 보면서 저는 겸손을 배웁니다.

2009년. 소중한 인연을 떠나보낸 가슴 아픈 해. 그 인연을 생각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면서 한 해를 떠나보냅니다. 혹시 2009년 한 해를 생명 살리는 일로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은 JTS(국제기아 · 질병 · 문맹퇴치기구 Join Together Society)로 전화기를 돌려 주세요.

* 이 글은 JTS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권영숙님의 글입니다. 지난 12월 23일 JTS 송년캠페인에 참여해서 봉사활동한 소감을 쓴 글인데 '오마이뉴스'에 올려져있는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누군가에게 무한한 가치 있다는 자체가 아주 큰 감동

인터뷰 **백성희**
정리 **이재경(자원봉사자)**

백성희님은 국제로타리 3650지구 서울장원로타리 회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오랫동안 JTS에 후원을 하고 있고 JTS 감사를 맡고 있다. 또한 지난 해 7월 1일부터 서울 장원로타리클럽 회장을 맡으면서는 필리핀 민다나오의 오지에 학교 짓는 후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새해를 맞으면서 한 후원자의 따뜻한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찾았던 백성희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길 가는 그 짧은 순간에
‘한 인간의 힘이 사람을 이렇게도 바꾸는구나!’ 싶었지요.
하루하루 구걸하며 희망 없이 사는 아이들을
번듯한 희망찬 학생으로 바꾼 한 인간의 위대함에 전율했고
앞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JTS와는 언제부터 인연이 되셨는지요?

부인이 먼저 정토회에 다녔습니다. 저는 그냥 관심만 갖고 있었지요. 그러다 6-7년 전에 몸이 아팠는데, 고개가 불편하여 병원에선 재활훈련을 받을 것을 권했어요. 심한 스트레스로 목이 안 움직이게 된 거죠. 아내가 정토수련원의 ‘깨달음의 장’을 권해서 292차 깨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 후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서 건강해졌는데 그 후로 정토회와 JTS를 알게 되었습니다.

JTS에 봉사활동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동기는 없었습니다. 자원봉사는 그 전부터 로터리 클럽이나 사회봉사단체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필리핀 민다나오에 JTS 사업장을 방문 하셨는데 어떤 동기로 가게 되었고 방문 후의 소감이라면?

5-6년 전 정토회 주최로 하는 12차 인도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둥게스와리에서 차를 내려 걸어가는 첫 길목에 거지인 아이들이 쭉 늘어서서 구걸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교복을 단정히 입은 아이들이 줄서서 꽃을 목에 걸어주면서 환영해주었습니다. 그때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길 가는 그 짧은 순간에 ‘한 인간의 힘이 사람을 이렇게도 바꾸는구나!’ 싶었지요. 하루하루 구걸하며 희망 없이 사는 아이들을 번듯한 희망찬 학생으로 바꾼 한 인간의 위대함에 전율했고 앞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모자를 내려쓰고 걷던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다녀와서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치원 하나 짓는데 25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늘 술을 마셔대는 내가 조금만 술을 줄이면 유치원 하나를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상응기부제' 프로그램 (Matching grant)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기업에서 임직원이 내는 기부금만큼 기업에서도 후원금을 내는 제도

또한 그 곳에서 일하다 강도의 총에 맞아 죽은 봉사자를 생각하며 '목숨까지 내놓고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 후원하고 기부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물건이든 돈이든 마음이든 뭐든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JTS 감사가 되었고 더욱 본격적으로 일하게 되었지요.

로타리클럽 3650지구에서 단체의 이름으로 JTS를 후원해주셨고 여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JTS후원 활동상황과 감동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지난 2008년 12월, 3650지구 행사 때 로타리클럽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JTS 부스를 설치하여 로타리클럽내에 JTS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2009년 7월 장원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민다나오에 장원로터리클럽의 이름으로 "평화의 학교"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알고 로타리 3650지구 현 총재이신 윤영석 총재님께서 선뜻 3000불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참여한 지난 12월 4-5일 3650지구대회에 행사 때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로 "당신의 클럽도 할 수 있습니다. 민다나오에 평화의 학교를 건립하자' 는 타이틀을 걸고 홍보부스를 만들어 돈 33만원과 115불을 모금했습니다.

그날 JTS 활동상황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던 차기 박영구 총재님께서 어제(12월 23일) 1만4천 불을 지구에서 지원 할 테니 로터리클럽의 "상응기부제" 프로그램을 이용, 최대 5만 4천 불을 조성하여 "평화의 학교"를 건립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지부진 하던 일들이 로터리클럽안에서 새롭게 전개되니 기쁠 따름입니다.

이것은 JTS가 종교, 정치, 국적을 초월해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가 이뤄낸 감동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보대사인 김여진님과 배종옥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활동하다가 가장 감명 받은 기억이 있으신지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TV는 아주 귀했고 영화관은 상상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끔 학교 운동장 골대에 설치한 임시 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제가 이 직업(현대자동차 삼풍대리점 대표)을 갖게 된 건 그때 본 영화 때문입니다.

"이것은 JTS가 종교, 정치, 국적을 초월해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가 이뤄낸 감동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모르겠지만 어느 장면 속에서 가방을 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멋지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토목회사를 열심히 다니는데 임시번호를 붙인 승용차가 공사장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현듯 어릴 적에 보았던 영화장면과 오버랩 되면서 가방 든 그 주인공이 생각났고 그 후로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도 성지순례 시에 수자타아카데미를 다녀온 후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빔프로젝트를 보냈는데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때마다 잘 쓰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인도의 불가촉천민 아이들이 그 스크린을 통해 영화의 주인공을 닮아가는 상상을 합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 누군가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그 자체가 아주 큰 감동입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 혹은 JTS의 후원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봉사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현재 있는 자리에서 행하는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직장에서는 직원들과 차 한 대 팔 때마다 만원씩을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와 세상이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터리클럽이든 현대자동차든 그 어디든…

작은 정성을 모아 나와 주변이 함께 하는 것이지요. 역설적이게도 봉사는 이기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해보면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이 즐거움을 내가 놓인 자리에서부터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JTS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JTS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6-7년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JTS를 알고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JTS는 일에 비해 실무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자원활동가도 많이 들어오고 같이 봉사하는 맘도 나누어 더욱 빛나는 JTS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도 내가 다니는 대안학교의 어려운 아이들, 이 지역 아이들에 대해 상세히 묻고 도울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상의한 백성희님, 인터뷰하는 동안 인도 수자타 아이들 얘기를 할 땐 복받치는 감정에 눈시울을 붉혔다. 한국에서 50대 나이에 사업하는 남자가 이런 모습도 있구나 하니 아름다웠다.

인도소식

❶ 동계 구호품 분배와 함께 센서스 카드 발급하다

더운 우기가 지나고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둥게스와리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총 6일간 겨울옷과 사리 천을 나눠 주었다. 열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동계 구호품 분배에서는 구 센서스 카드를 새로운 센서스 카드로 교체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었다. 아울러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센서스 카드에 대한 주민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새로운 센서스 카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둥게스와리 인근 인구 유동을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❷ 극빈자에게 쌀과 달, 오일 배급

지난 12월 5일 둥게스와리 일대 극빈자에게 쌀 20kg과 달(밥에 넣어 먹는 인도식 양념), 식용유를 나누어 주었다. 이번 12차 극빈자 구호에서는 싸이월드의 후원을 받아 기존 극빈자 외 사전 마을 조사를 통해 새롭게 파악된 독거노인, 병약자, 고아 등에게도 구호품이 지급되었다. 구호품을 나르기 힘든 극빈자에게는 마을 스탭들이 직접 집까지 구호품을 갖다주기도 했다.

❸ '샘물 프로젝트' 올해 중 완료 예정

식수 사정이 열악한 안투비가 마을의 샘물 프로젝트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안투비가는 기존 핸드펌프에 석탄 불순물이 섞여 나와 음용수로의 이용이 어려운 형편이다. 대신 안투비가에는 일 년 내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물탱크와 파이프를 설치하는 '샘물 프로젝트'가 연초 시작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참여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올 연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국내소식

❶ '민다나오에 평화의 학교를 건립하자' 기금 모금 캠페인 벌여

12월 4일, 5일 국제로타리 3650 지구 대회에서 JTS 홍보 및 필리핀 민다나오 학교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였다. 이는 장원로타리클럽 백성희 회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는데 배우 배종옥씨와 김여진씨 등이 참석하여 아시아 어린이들이 왜 학교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아시아 특히 민다나오의 열악한 상황과 학교가 없어서 배움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현실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많은 로타리안들의 공감과 관심을 갖는 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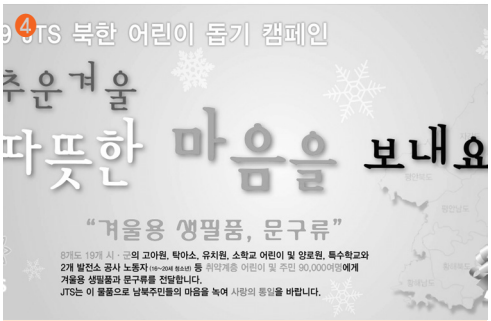
❷ 금오중학교 캠페인 모금 전달식

JTS는 12월 9일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금오중학교(교장 : 김태범 선생님)에서 기금전달식을 진행하였다. 금오중학교 학생들은 캠페인을 통하여 2009년 필리핀 민다나오 학교지원 사업 120만원, 2008년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으로 80만원 등 총 200만원을 모금하여 JTS에 전달하였다. 이번 기금식은 김기진 JTS 공동대표와 김태범 교장선생님, 그리고 캠페인을 지도하신 정영수 선생님께서 함께 참가하였다.

❸ 제일코리아연합 북한어린이돕기 성금 전달식

12월 7일, 제일코리아연합 강이행님이 JTS를 방문하여 1년간 일본 6개 지부에서 북한어린이 돕기 캠페인으로 모금한 263,023엔을 JTS에 전달하였다. 제일코리아연합은 일본의 제일교포 모임으로 도쿄, 오사카 등 6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10여년간 매주 일본 현지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진행하여 1년에 한번씩 한국을 방문하여 JTS에 전달하고 있다.

국내소식



탐엔탐스 매장내 PDP에서 JTS 동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❹ 12월 17일, 인천항에서 선적식 가져

지난 12월 17일 인천항에서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을 보내요' 라는 슬로건으로 선적식을 가졌다.

JTS는 북한의 8개도 19개 시·군 취약계층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 및 양로원, 특수학교어린이 및 주민 약 90,000여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겨울 의류, 신발, 내의, 양말, 목도리, 장갑, 모자 등과 문구류인 공책, 볼펜, 가방 그리고 기타 생필품인 유아용 기저귀, 노인용 돋보기 등을 20피트 컨테이너 2대 분량으로 북한의 남포항으로 보냈다.

이날 추운 날씨에도 50여명의 후원회원들이 모여 추운 겨울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❺ 아름다운 나눔 '토니모리 with JTS' 협약 체결

토니모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선다. 그 일환으로 토니모리는 12월4일 본사에서 '아름다운 나눔, 토니모리 with JTS'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토니모리 배해동 회장, 강수환 대표를 비롯해 JTS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배종옥, 노희경 작가, 배우 김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을 기점으로 전국 토니모리 매장에 JTS 모금함을 비치할 예정이며 매월 토니모리 본사 직원 50여명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기부금 모아 전달하는 등 아름다운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토니모리 배해동 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 앞으로 토니모리 성장과 더불어 나눔 활동의 깊이도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JTS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배종옥은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하고, 아이들은 제 때 배워야 한다"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주신 토니모리의 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국내소식

❻ 황정음 · 김용준, '우결' 테마곡 수익금 1,500만원과 라면 500상자 JTS에 기부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알콩달콩한 커플 황정음-김용준이 '우리 결혼했어요' 테마곡 수익금 전액을 JTS에 기부했다. 김용준은 지난 6월 디지털 싱글 '커플'을 발표했다. 이 곡은 김용준이 직접 작사하고 황정음이 피처링으로 참여해 '우리 결혼했어요'의 테마곡으로 방송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황정음과 김용준은 디지털 싱글 '커플'의 판매액 중 본인들에게 분배되는 수익의 전액을 JTS에 1,500만원과 라면 500상자를 기부했다. 황정음과 김용준은 "평소 국제지원이나 구호활동에 관심은 많았으나 직접 참여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갖게 돼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 이 같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예정이다"며 "함께 노래했던 곡의 수익금을 기부하게 돼 우리 둘에게도 너무 뜻 깊은 일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❼ 따뜻한 마음' 티아라, 화장지 선물은 JTS에 기부

6인조 걸그룹 티아라가 최근 한 킴벌리로부터 받은 화장지를 JTS에 기부했다. 먼저 티아라는 타이틀 곡 'Bo Peep Bo Peep'의 발음이 화장지 브랜드 이름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유한킴벌리로부터 뽀삐 화장지 50팩을 기부받았다. 티아라는 "황정음의 소개로 알게 된 이 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번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뜻밖의 선물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이 더해져 더욱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❽ 마리끌레르 Orange Campaign '장기하편'

마리끌레르는 오렌지 캠페인을 통해 JTS의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호는 가수 장기하씨가 JTS의 활동을 알리는 루돌프가 되었다. 배우 배종옥과의 인연으로 JTS 활동에 뛰어들게 된 장기하와 얼굴들은 지난 어린이날 JTS 캠페인에 참가하여 근사한 거리 공연을 선사하기도 했다.

새나눔회원 _ 개인 · 단체

2009년 10월 1일 – 2009년 11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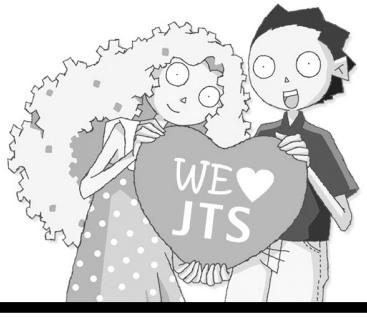
문의전화 02-587-8995

인도 및 제3세계

강수미 P0042837
강정임 P0043259
강정희 P0043374
강창민 P0043701
강춘화 P0043606
구완회 P0020583
권서진 P0043421
권영태 P0043565
권정훈 P0042853
길숙현 P0039767
김경미 P0043707
김경순 P0043619
김경자 P0020945
김경희 P0043432
김귀영 P0034050
김기하 P0043428
김남경 P0041012
김남희 P0043316
김명자 P0023038
김미란 P0043204
김미애 P0043213
김미자 P0042486
김미지 P0043182
김민서 P0042921
김봉렬 P0030627
김상윤 P0043317
김상은 P0042619
김선영 P0043429
김선윤 P0044043
김소현 P0043206
김수미 P0039073
김수민 P0042769
김연진 P0042846
김영경 P0042770
김영설 P0043280
김영수 P0042515
김옥주 P0042876
김왕욱 P0042939
김우경 P0043455
김원태 P0038691
김유미 P0042716
김은숙 P0043089
김은진 P0043075
김은희 P0042814
김정곤 P0010101
김정민 P0042335
김주리 P0042763
김지언 P0043393
김지은 P0043186
김태윤 P0043786
김현조 P0029972
김형경 P0043082
김혜리 P0042528
김화정 P0043434
김효선 P0043045
김효은 P0042855
김흔수 P0043440
남정화 P0007759
노미영 P0043525
노태윤 P0044332
류아라 P0043541
류은경 P0043047
명가진 P0042202
명광식 P0043168
박경옥 P0043628
박귀민 P0043399
박금주 P0015657
박동수 P0038882
박병길 P0043629
박분숙 P0043507
박성자 P0043650
박성희 P0042835
박소녀 P0017814
박송이 P0043636
박수희 P0042903
박승철 P0039161
박아름 P0043302
박용수 P0029988
박은지 P0043523
박정미 P0032644
박정순 P0043396
박정은 P0042852
박정희 P0042937
박한선 P0012366
박향희 P0042834
박형섭 P0042851
박혜영 P0043458
배은주 P0043325
서연주 P0042906
서혜승 P0042886
성관사 S0043718
성민정 P0042824
성현주 P0042626
손승목 P0044225
손영수 P0043185
송민경 P0042765
송영주 P0043073
신미라 P0043169
신상근 P0029131
신영아 P0043052
신용선 P0043343
신유진 P0043212
신재식 P0043438
신현주 P0043528
심선희 P0023037
심현주 P0043087
안기숙 P0005487
안석봉 P0032084
안정현 P0037232
오순자 P0041068
오용태 P0002163
오정화 P0042757
옥연우 P0020781
우진영 P0043276
원대용 P0042215
유미 P0028100
유윤식 P0005421
유은경 P0043651
유재봉 P0026322
유현진 P0038898
윤대영 P0042584
윤소영 P0043526
윤여정 P0043349
윤영미 P0038184
윤정아 P0043215
은현 P0043645
이경희 P0042759
이동역 P0043702
이로사 P0042646
이만희 P0034507
이미경 P0042881
이미애 P0043614
이미지 P0010781
이미혜 P0043401
이미화 P0042803
이상백 P0038523
이상준 P0015095
이선영 P0015192
이소영 P0038735
이시욱 P0043646
이애리사 P0042773
이연승 P0043793
이영철 P0043431
이오형 P0042849
이원자 P0042817
이윤신 P0043764
이은경 P0043611
이은미 P0043048
이자연 P0042775
이정미 P0042774
이정민 P0004718
이정희 P0043188
이종분 P0043459
이주은 P0039765
이지이 P0042934
이찬영 P0043566
이채영 P0042941
이혜경 P0043191
이혜진 P0009979
이희숙 P0029661
장라윤 P0043081
장세영 P0042768
장우상 P0034930
장우진 P0034995
장원석 P0043291
장은숙 P0042936
장정규 P0043616
장지은 P0043397
장천섭 P0023492
장향숙 P0035629
장희수 P0007407
전동곡 P0042908
전소야 P0041522
전종선 P0042838
전희제 P0043057
정경애 P0028506
정보라 P0043218
정익평 P0018218
정정문 P0043524
정지훈 P0043437
정호연 P0042823
조경희 P0043622
조동훈 P0042910
조성분 P0043384
조용성 P0009352
조정용 P0037478
조정희 P0026714
조혜인 P0043540
주유빈 P0043022
지미숙 P0043703
진영미 P0042004
진정수 P0043321
진현영 P0020053
차경순 P0042878
차진희 P0032429
천재국 P0042153
천진영 P0003700
천향숙 P0019618
최경자 P0042832
최금희 P0025646
최보아 P0043216
최선임 P0043278
최승리 P0043264
최양순 P0042905
최양운 P0040360
최용주 P0040086
최유자 P0042833
최정윤 P0037872
최진형 P0043320
최진희 P0042578
최태복 P0043605
최현경 P0043351
추민경 P0042776
한경희 P0043441
한규호 P0043607
한나래 P0022684
한세민 P0042055
한정희 P0044259
한종훈 P0010223
한혜성 P0043608
허상혁 P0043202
허재 P0042850
현동재 P0043164
홍순연 P0043220
홍승현 P0042568
홍장희 P0020584
홍준혁 P0043652
홍태성 P0043567
황보미 P0037634
황부년 P0042856
황선자 P0041247
황정미 P0044226
강인자 P0043505
강정임 P0043259
강춘화 P0043606
강희섭 P0042764
고경옥 P0007576
구완회 P0020583
구윤회 P0024537
권숙희 P0043179
권정훈 P0042853
김경아 P0043538
김경예 P0002711
김경이 P0033972
김경희 P0043432
김광선 P0011977
김남희 P0043316
김도형 P0043219
김동균 P0042752
김명순 P0043442
김미경 P0036222
김미숙 P0043054
김민서 P0042921
김상은 P0042619
김상희 P0043189
김선미 P0042874
김선영 P0043429
김세현 P0043792
김소라 P0042845
김소현 P0043206
김수미 P0039073
김수정 P0043686
김수한 P0006989
김아령 P0042760
김양권 P0025524
김연진 P0042846
김영경 P0042770
김영설 P0043280
김영수 P0042515
김옥진 P0028401
김원주 P0043050
김유미 P0042716
김은숙 P0043089
김은지 P0023681
김인숙 P0042269

북한어린이돕기

김종옥 P0043457
김종희 P0027778
김지은 P0043186
김진기 P0044275
김진남 P0019286
강선옥 P0043051
강성남 P0040935
강수미 P0015585
강수미 P0042837



※ 정기후원자는 지면할애상 제외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김현조	P0029972	오봉열	P0041842	이진우	P0043042
김현진	P0043394	오순자	P0041068	이창윤	P0009021
김혜리	P0042528	오정화	P0042757	이태경	P0043041
김혜원	P0025082	오 택	P0004307	이태광	P0042801
김화정	P0043434	우진영	P0043276	이형세	P0043913
김효정	P0043641	원대용	P0042215	이혜경	P0043191
김흔수	P0043440	원장묵	P0043430	임미희	P0042152
김희선	P0033485	위옥주	P0039119	임보성	P0042630
도지은	P0043543	유병부	P0044045	임제영	P0043620
류은경	P0043047	유승자	P0042901	임지운	P0026701
마외순	P0042083	유현진	P0038898	임진세	P0043395
명가진	P0042202	윤대영	P0042584	임형준	P0043439
명광식	P0043168	윤여정	P0043349	장세영	P0042768
문성민	P0029721	윤영미	P0038184	장영숙	P0044240
민은정	P0042539	이경희	P0042759	장은숙	P0042936
박경옥	P0043628	이근만	P0012850	장지은	P0043397
박금주	P0015657	이나경	P0042771	장향숙	P0035629
박기범	P0010176	이나리	P0042761	장희수	P0007407
박상욱	P0043028	이다혜	P0043756	전동곡	P0042908
박수민	P0043398	이동림	P0025708	전소야	P0041522
박수희	P0042903	이동역	P0043702	전종선	P0042838
박승철	P0039161	이미경	P0042881	전희제	P0043057
박유미	P0037846	이미애	P0043614	정경애	P0028506
박은수	P0040878	이미혜	P0043401	정기종	P0043086
박정희	P0042937	이미화	P0042803	정나도	P0042847
박혁수	P0043077	이상백	P0038523	정동희	P0007546
박혜영	P0043458	이상원	P0043314	정민호	P0031978
박희순	P0022393	이성원	P0043333	정보라	P0043218
방선영	P0043400	이성인	P0043706	정양출	P0020685
배은주	P0043325	이소영	P0038735	정은화	P0042907
백소영	P0032218	이수정	P0042579	정정모	P0043046
서기영	P0043508	이숙례	P0037651	정향희	P0043692
서혜승	P0042886	이승윤	P0043315	정호연	P0042823
설상희	P0011062	이여진	P0043527	조갑선	P0039870
설한규	P0011944	이영철	P0043431	조경희	P0043622
손윤정	P0043203	이오형	P0042849	조명애	P0042857
송진원	P0043649	이원자	P0042817	조성분	P0043384
신미라	P0043169	이유미	P0015790	조윤주	P0032065
신선일	P0034901	이은경	P0043611	조정용	P0037478
신영아	P0043052	이은정	P0043533	조혜인	P0043540
신지원	P0041610	이인숙	P0032296	진정수	P0043321
신현종	P0037475	이재분	P0042563	차경순	P0042878
신현주	P0043528	이재영	P0021965	천재국	P0042153
안상현	P0043423	이재웅	P0036052	최문희	P0031162
안성숙	P0043653	이정민	P0028403	최보아	P0043216
안소연	P0042996	이정희	P0043188	최순희	P0043084
안춘옥	P0003647	이주은	P0039765	최용주	P0040086
양진	P0042762	이진미	P0031515	최현경	P0043351

추민경	P0042776	김정숙	P0008115	김소라	P0042845
하보겸	P0034228	노미영	P0043525	김아령	P0042760
한경이	P0042879	마경숙	P0002881	김영범	P0043162
한규호	P0043607	박경옥	P0043628	김영설	P0043280
한살림경남	S0022191	박금주	P0015657	김은숙	P0043089
한혜성	P0043608	박주원	P0025759	박경옥	P0043628
허상혁	P0043202	박주하	P0043339	박관열	P0043293
허율	P0040788	박혜영	P0043458	박승철	P0039161
허재	P0042850	배은주	P0043325	박혜영	P0043458
허재혁	P0044331	신영아	P0043052	방선영	P0043400
현동재	P0043164	신현종	P0037475	배은주	P0043325
홍순연	P0043220	안광민	P0026243	변우승	P0042882
홍승헌	P0042568	안정현	P0037232	변일호	P0043049
황두현	P0041886	안춘옥	P0003647	신영아	P0043052
황보미	P0037634	유미	P0028100	신준섭	P0029965
황부년	P0042856	윤영미	P0038184	신지원	P0043800
황선자	P0041247	이관우	P0043563	안정현	P0037232
		이미경	P0029666	육연호	P0043290
		이세규	P0043031	윤영미	P0038184
북한재건		이오형	P0042849	윤정아	P0043215
강인자	P0043505	이원자	P0042817	이광렬	P0007000
고의숙	P0029109	이창윤	P0009021	이꽃비	P0043562
김민서	P0042921	장지은	P0043397	이동림	P0025708
김종인	P0042581	전소야	P0041522	이미경	P0029666
류승자	P0037654	정양출	P0020685	이승규	P0010991
박미정	P0039672	정지훈	P0043437	이영은	P0043564
박상욱	P0044142	최병연	P0013768	이오형	P0042849
박성준	P0042989	최선임	P0043278	이은정	P0043533
박주원	P0025759	추현재	P0011922	이자연	P0042775
안상현	P0043423	한나라	P0043083	이지향	P0042938
엄애순	P0039437	한나래	P0022684	임지후	P0043205
이난희	P0019214			장라윤	P0043081
이명자	P0028510			장유정	P0043190
이지윤	P0043640	**인도모자보건**		장지은	P0043397
정태호	P0025998	강수미	P0042837	정나도	P0042847
최진희	P0042578	강정희	P0043060	정양출	P0020685
		고금숙	P0043207	조교금	P0044250
		권정훈	P0042853	조명애	P0042857
결핵퇴치		김경이	P0033972	천향숙	P0019618
강수미	P0042837	김경희	P0043432	최성락	P0043261
김경희	P0043432	김남희	P0043316	최정화	P0030910
김남선	P0001880	김다혜	P0043074	한창훈	P0044224
김남희	P0043316	김미지	P0043182	황서진	P0043217
김대현	P0043730	김미향	P0043465		
김민서	P0042921	김민서	P0042921		
김봉렬	P0030627	김민지	P0027654		
김상은	P0042619	김봉렬	P0030627		
김순옥	P0040400	김상은	P0042619		

특별후원금

2009년 10월 1일 – 2009년 11월 30일

문의전화 02-587-8995

인도 및 제3세계

(주)엠씨케이퍼블리싱 20,000,000원
부천불대 88,000원
68일깨후원금 845,360원
강대극 500,000원
강성우 200,000원
강주원 생일축하 150,000원
광주백양사모금 447,000원
교사정토회 아시아학교짓기 259,000원
권순범 50,000원
김경자 30,000원
김경희 20,000원
김귀영 30,000원
김근식 500,000원
김기왕 100,000원
김등미강 100,000원
김민선 인도펌프 500,000원
김민주의 마음 50,000원
김봉애 12,000원
김삼선 10,000원
김영주 10,000원
김영호 10,000원
김영희 100,000원
김오기 100,000원
김일윤 50,000원
김정란 50,000원
김정숙 30,000원
김정윤 500,000원
김현정 500,000원
노미영 100,000원
류선희 20,000원
류아라 30,000원
박근 200,000원
박근숙 100,000원
박동수 100,000원
박미정 30,000원
박소녀 280,000원
박송이 20,000원
박영화 100,000원
박은지 10,000원
박지연 450,000원
박혜숙 100,000원
배종옥 2,000,000원
성대철&위소연 결혼2주년 기념 50,000원
성현주 30,000원
송성룡 400,000원
시애틀정토회 오영주 $50
이혜정 $90,
우승현 $40
순회법회 $266,
법당 $20
신강희 2,000,000원
신선재 100,000원
안기숙 10,000원
안성옥(알렉스) 1,000,000원
안인숙 30,000원
여정화 10,000,000원
오상희 50,000원
운림사 50,000원
유용검 생일축하 100,000원
유윤식 30,000원
윤성철(광주) 40,000원
이광성 100,000원
이미지 50,000원
이상준 300,000원
이선영 1,000,000원
이양선 100,000원
이양옥 100,000원
이연승 90,000원
이연옥 인도펌프 100,000원
이윤신 1,000,000원
이정문 1,000,000원
이진아 100,000원
이채화 100,000원
이혜진 30,000원
이희숙 131,000원
이희자 50,000원
장선옥 70,000원
장숙희 30,000원
장우상 30,000원
장우진 30,000원
장인복 60,000원
재일코리안(KEY) ¥263,023
정경옥 100,000원
정순희 20,000원
정익평 150,000원
정종화 300,000원
정혜진 300,000원
제천 목요불대생들 50,000원
조용성 300,000원
조인전 50,000원
조정희 5,000,000원
조춘희 10,000원
진택근 100,000원
천진영 300,000원
최이섭 1,000,000원
최정옥 100,000원
최정윤 10,000원
하재남 91,000원
한정희 1,000,000원
황보미 30,000원
황석규 500,000원

북한어린이 돕기

강대극 굶주리는어린이가 없기를… 1,700,000원
강연수,오재인영가 극락왕생기원 1,500,000원
강인자 100,000원
고도봉 영가 100,000원
권정화 300,000원
김광선 100,000원
김남선 500,000원
김복순 22,000원
김설희 1,000,000원
김성란 100,000원
김세정 500,000원
김세현 100,000원
김수한 1,000,000원
김영범 30,000원
김영호 10,000원
김옥희 50,000원
김은하 20,000원
김종희 923,000원
김진남 10,000원
김향임 100,000원
김혜원 37,000원
김효정 20,000원
류수현 100,000원
문병두,송정순영가 극락왕생기원 500,000원
문성민 굶주리는어린이를 위하여… 600,000원
박지영 10,000원
박희순 50,000원
신정녀 영가 100,000원
안상현 50,000원
오경원 100,000원
오봉열 수능생소원성취 100,000원
유병부 900,000원
유재윤 50,000원
이근만 5,000,000원
이다혜 200,000원
이재웅 210,000원
이정민 1,000,000원
이진아 100,000원
이형세 50,000원
임보성 10,000원
임진세 10,000원
정동희 59,000원
정인영 500,000원
정찬영 굶주리는어린이에게.. 60,000원
정해봄 2돌기념 30,000원
조미경 1,000,000원
조윤주 240,000원
지은아 500,000원
최은주 56,000원
필리핀 정토회 $1,400
하보겸 20,000원
하은이 30,000원
한승희 185,000원
허영진 2,000,000원
허재혁 200,000원
홍성관 1,000,000원
홍승진 수시발원 200,000원
서미향(연꽃마을) 76,970원
신연재 88,000원
심의준 300,000원
오삼동 50,000원
유수현 출생기념 100,000원
유재윤 50,000원
윤택현 10,000원
윤효진 100,000원
이동욱영가 극락왕생기원 1,000,000원
이수정 10,000원
이순이 생명의 분유 1,000,000원
이영현 800,000원
이윤규 100,100원
이일중 1,000,000원
이자순 50,000원
이진아 10,000원
이충희 20,000원
임송화 50,000원
임재식 100,000원
전동환 80,600원
정광자 100,000원
정숙자 1,000,000원
정순덕 20,000원
정순희 300,000원
조행자 30,000원
최선호 10,000원
최선희 10,000원
최순이 50,000원
최인숙 북한어린이의약품 지원 50,000원
최정원 100,000원
허연화 1,000,000원
허인호 30,000원
허진호 어린이에게양식을 20,000원
LA정토회김홍식 $100
LA정토회 $820
독일정토회 5,320(유로화)

북한재건

강인자 1,000,000원
구인련 50,000원
권순범 50,000원
김동민 100,000원
김우기 1,000,000원
김정자 700,000원
김진수 50,000원
김진형 300,000원
김태권 36,000원
류승자 30,000원
박경미 200,000원
박미정 50,000원
박세진 50,000원
박정순 120,000원
박정심 50,000원
박진석 20,000원
서예경 100,000원
서창임 50,000원
성종호 50,000원
유재연 500,000원
유재한 500,000원
이난희 50,000원
이명자 100,000원
이상교 100,000원
이영주 100,000원
이인순 50,000원
이혜진 생일축하 50,000원
이희자 50,000원
임상춘 200,000원
임승규 1,000,000원
장성호 50,000원
정명숙 20,000원
정태호 50,000원
조보경 100,000원
조복연 10,000원
조성숙 500,000원
조은연 1,000,000원
조희옥 30,000원

결핵퇴치

김기진 생일축하 1,000,000원
김남선 500,000원
김대현 150,000원
김정란 50,000원
노미영 100,000원
노태윤 100,000원
류기분 영가의 뜻을 기리며... 200,000원
박근순 성불기원 100,000원
최병연 100,000원
추현재 300,000원

인도모자보건

권민혜 100,000원
김미지 10,000원
김정란 50,000원
김정수 100,000원
모말옥 생신축하 50,000원
신준섭 1,000,000원
신형철 100,000원
유재윤 50,000원
이다현 2돌기념 100,000원
이진아 100,000원
장윤해 10,000원
한창훈 50,000원
홍지원 80,000원

나눔저금통 현황

2009년 10월 1일 – 2009년 11월 30일

문의전화 02-587-8995

경주
김현우 17,620 방성연 19,380 선정숙 25,650 황분옥 5,730 황혜정 3,180

대구
고진영 30,580 광명떡집 6,620 김경숙 25,950 김몽환3개 37,520 김위숙 16,320 김형미 13,510 **매곡어린이집34개 216,280** (권예진 3,350 김경진 1,660 김정아 2,720 김지수 7,720 김효민 1,700 노성호 20,930 박세은 9,990 박지민 4,200 백서정 7,730 백채원 8,060 석예솔 1,790 수민 510 신윤호 13,950 심지영 4,500 엄준석 3,420 은서 3,000 이다경 2,800 이대인 4,810 이도형 7,440 이동민 9,880 이수연 1,460 이아람 7,180 이아람 6,390 이종무 6,170 이종수 6,420 이준하 11,550 임지현 7,510 전사랑 3,250 정수근 540 정은영 8,140 정현재 8,500 한은진 7,780 한창준 8,230 황서혁 6,500 황유하 6,500) 무명 7,190 무명 20,410 무명 12,550 무명 10,150 무명 16,640 무명2개 73,190 무명3개 78,740 문수스님2개 69,950 박길태 24,800 박상희 26,430 박성열 26,990 박순규 31,250 박임숙 15,160 방정희 22,830 백애란 10,330 백유선 10,990 불도화 127,320 신미라2개 9,780 윤여영 18,300 이마트마일리지 17,082 이수미 23,480 이은기 35,410 임명지 20,510 장선옥? 36,990 지성빈 7,450 차상옥 25,040 최민준 28,720 칠곡군소망어린이집 27,390 칠곡군소망어린이집작은음악회 13,300 포항유강블랙피아 10,610 학남중1학년7반 27,100 홍연옥 28,980 황선애 24,640

대전
김기일 22,000 김누리 17,500 김미나 17,900 김반야솔 17,300 김반야솔 24,010 김반야솔 22,700 김상원 21,000 김용숙5개 101,000 김은주 111,000 김종혁 26,000 김태호3개 135,000 김현수 31,000 무명 25,300 무명 12,000 무명 4,770 무명 13,000 박예진 35,680 박찬영 28,870 별리상가 8,760 보부상마트 12,890 보부상마트 12,630 서윤지 19,590 엄경애 29,100 예목한의원 36,490 예목한의원 30,700 오민우 28,240 이준희 24,760 장병윤 22,890 장우상 20,650 장우진 21,590 정경주 24,840 조광래 19,320 태광식 30,330 하은이 28,020 현주 6,880 힐튼미장원 25,180

동래
강혜원 23,200 김소정 3,260 동래삼계탕 30,880 무명 38,150 무명 13,660 무명 25,480 무명 14,730 무명 16,880 무명 4,710 배복애 56,020 백현옥 20,200 복돼지 41,500 성영혜 15,840 송현주 87,380 심근아 22,990 심연주 25,970 심학순 10,310 안소희가족 44,520 이경녀 44,580 이수남 30,690 이수남 27,380 이정애 35,990 정원철 16,480 정철상 50,650 지일수 5,510 천정숙 34,150 최은아 7,300 최해란 13,210 홍승태 4,280 황두연 6,550 황혜원 26,260

마산
김민주 16,330 김삼선 25,690 김태우 32,360 김혜민 14,310 무명 14,380 무명 12,130 무명 31,850 박선후 19,100 송민석 100,000 안석봉 34,780 양진월 22,640 유정수 6,500 이성미 21,120 이영민 11,640 이영재 31,820 이우희 24,820 이은주 26,980 전찬웅 53,620 코오롱사우나(이경희) 68,200 하정아 20,460 한명희 28,640 홍예지5개 71,050 황은정 23,820 황인석 20,890

목포
장혜자 24,930

서울
가은농협 28,170 강진석 14,710 고은경 9,300 김경문 11,480 김경애 21,300 김경원 27,940 김경은 50,390 김기보 5,020 김기웅 18,350 김만혜 21,040 김미옥 33,800 김미옥 31,800 김삼희 22,500 김수영 12,410 김순호 19,170 김시경 37,810 김윤화 32,670 김은경 150,150 김정자 21,000 김해경 100,000 김현숙 25,570 김현주 10,500 김형준 33,000 김희숙 15,600 김희연 57,040 남부초등학교 11,390 노태곤 24,300 농협보험 65,770 대구교대매점 14,250 독정초등학교 200,000 두정고등학교3학년 208,000 류진아 18,790 무명 16,570 무명 12,650 무명 15,060 무명 30,640 무명 22,670 박고운 27,290 박근호 53,230 박누리 16,730 박보영 14,090 박태옥 25,950 박한범 32,740 박현근 32,410 방학초등학교 262,790 백경숙 20,270 북삼농협 23,830 불로초등학교2학년6반 183,030 산곡초등학교 131,980 서옥희 39,390 선정고등학교 700,000 소하중학교 134,740 송곡여정산고244,480 신계중학교 129,300 양동섭 6,010 양서중학교 175,830 양서중학교 28,740 양호5,330 왕선희 28,000 유석형 27,000 윤미순 24,300 윤은상 35,610 의정부농협중앙회 39,000 이근순23,000 이단형 10,710 이동범 31,460 이명구 10,480 이미선 25,370 이상용 18,150 이상호 33,910 이선재 15,650 이영숙 37,200 이유미 20,500 이정자 30,200 이준호,이윤주54,820 이지원 16,480 전재희 33,340 정경숙 19,580 정란희 41,000 정심자 15,090 정연규 109,340 정원희 24,240 정인석 9,790 정종명 27,400 정태현 22,040 정해경 17,950 정해경 36,000 중산고등학교 155,190 중산중윤순애 49,760 최선경 31,160 최승표 104,100 최영희 52,890 최영희 59,950 최영희 45,990 최영희 24,920 최정미 1,620 한혜자 46,520 홍옥현 29,960 회덕농협송천지점 15,870

울산
김경화 12,100 김진태 16,710 무명 34,540 무명 27,470 울산공고 13,920 울산월계초등학교4,5,6학년 1,273,121 울산중앙축협 37,140 울산축협야음 21,940 이세한의원 2,350 정정화,하경태 55,440 조동원 20,660 한성덕 33,390

제천
김영철 17,960 김혜원 2,790 나민재 4,340 무명 37,320 무명 25,240 봉국사 13,750 유대석 2,750 유명심 4,840 장명예 5,760 정혜리 24,050 한 살림 67,820 한정애 8,500 황보미 23,710

청주
박노옥 22,160 이도경 49,225 이순자 41,500 이종준 108,470 지명구 21,650 최용석 37,040

해운대
강소담 37,440 강혜인 61,350 곽범섭 29,620 김길숙 17,900 김명자 16,170 김영옥 9,040 김종숙 22,700 김지원 11,310 김황윤 23,010 김효미 30,150 김희성 12,820 노란색큰돼지 349,000 라수빈외3명 17,400 무명 29,400 무명 5,020 무명 16,550 무명 12,410 무명 12,740 무명 13,220 무명 29,250 무명 26,185 무명 27,820 무명 18,540 박기원 39,270 박윤철 32,190 박정선 4,420 박주원 19,490 배정숙 32,550 신승희 23,410 오남순 35,910 왕혜인 6,130 유지웅 14,900 이경희 59,210 이상화 65,130 이서헌 36,850 이수원 15,590 이영미 19,750 이은화 17,370 이종원,이명은 20,100 전선주 33,910 전지오 14,420 정종욱 18,430 정종욱 15,470 정진영 52,560 정진희 62,470 조정화 10,450 최준욱 7,975 하가원 19,110 허재원 32,460

| 거리 모금 현황 |
광주 447,000 길벗 1,427,090 대구 402,770
대전 361,090 동래 1,102,540 마산 2,876,973
마산코오롱사우나 736,630 목포 157,050
서울 808,500 선암사 164,910 포항 146,090
해운대 78,731

* '아시아 어린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세요' 학교모양 저금통 놓았어요
※(주)탐앤탐스 카페 직영점 140여 곳
(탐앤탐스 매장내 pdp에서 jts 거리모금 동영상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주)본가 음식점 200여 곳
※(주)강릉집 음식점 30여 곳

명단 확인란

09년 10월 1일부터 09년 11월 30일까지 은행으로 후원금을 주셨으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후원분야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연말영수증이 발급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후원정보가 필요하니 꼭 연락바랍니다.(입금일, 이름, 금액)
문의전화 : 02-587-8995

2009년 10월 1일 – 2009년 11월 30일

10/29	조연옥(카드결제)	100,000
10/30	20박근성	10,000
11/30	20박근성	10,000
11/12	감사합니다	150,000
10/16	강미란	10,000
10/29	강불회	40,000
11/30	강불회	40,000
10/26	강세환	5,000
11/25	강세환	5,000
11/30	강세훈	50,000
10/30	강영남	50,000
11/30	강영남	50,000
10/8	강영순(북한	20,000
11/11	강인자	500,000
11/17	최현숙(계좌이체)	10,000
11/24	하진이 (계좌이체)	15,000
11/9	고도형	40,000
10/13	고인순	10,000
11/11	고인순	10,000
10/26	곽미미	10,000
11/25	곽미미	10,000
10/22	구름	200,000
10/26	구미정	10,000
11/26	구미정	10,000
10/26	구영미	3,000
10/26	구영미	20,000
11/25	구영미	20,000
11/25	구영미	3,000
10/28	권연수	50,000
10/13	권영경	30,000
11/12	권영경	30,000
11/11	권영미	3,000
11/25	권영미	3,000
10/21	권예중	50,000
10/16	권재경	5,000
11/30	권재경	5,000
10/27	권혁준	10,000
11/27	권혁준	10,000
11/2	김갑순	5,000
11/30	김갑순	5,000
11/5	김경란	55,000
10/26	김계남	1,000
11/26	김계남	1,000
10/5	김기환	100,000
11/5	김기환	100,000
10/20	김길중	20,000
11/20	김길중	20,000
10/1	김덕화	10,000
11/2	김덕화	10,000
11/26	김동근	700,000
10/23	김명지	30,000
11/23	김명지	30,000
11/23	김명진	5,000
10/19	김미경	10,000
11/18	김미경	10,000
10/15	김병구	100,000
11/16	김병구	100,000
11/24	김병채	600,000
10/12	김보경	1,000,000
11/10	김보경	1,000,000
10/13	김선경	100,000
11/20	김성초	80,000
11/23	김수현	110,000
11/4	김양지나	5,000
10/6	김억권	10,000
11/6	김억권	10,000
10/26	김연옥	10,000
11/25	김연옥	10,000
11/20	김영선	10,000
10/12	김영애	10,000
11/10	김영애	10,000
10/14	김예래	10,000
11/12	김예래	10,000
11/4	김원희	10,000
11/30	김원희	10,000
10/23	김유진	10,000
11/23	김유진	30,000
10/1	김유출	30,000
11/11	김유출	30,000
11/7	김은상	3,000
11/11	김은상	3,000
10/16	김은희	10,000
11/26	김은희	10,000
10/26	김재혁	10,000
11/25	김재혁	10,000
10/15	김점순	20,000
11/16	김점순	20,000
10/5	김정미	5,000
10/27	김정숙	20,000
11/26	김정숙	20,000
10/15	김정연	300,000
11/16	김정연	300,000
10/1	김정현	30,000
10/18	김종태	10,000
10/1	김지연	10,000
10/15	김지영(엄정무)	400,000
11/23	김찬옥	110,000
11/11	김철수	10,000
10/26	김춘심	10,000
11/23	김춘자	20,000
11/16	김태구	49,000
10/20	김태민	40,000
11/18	김태순	30,000
10/12	김현우	20,000
11/10	김현우	20,000
10/5	꿈에도소원은통일	10,000
11/3	꿈에도소원은통일	10,000
10/14	나그네	100,000
10/5	나모니카	10,000
11/2	나모니카	10,000
10/6	남재환	30,000
10/24	남재환	20,000
11/12	노광철	80,000
10/12	노재성	10,000
11/10	노재성	10,000
11/2	대한불교조계	10,000
11/30	대한불교조계	10,000
11/20	류춘순	10,000
10/1	문용규	50,000
11/2	문용규	30,000
11/10	문정자	10,000
10/26	문희경	10,000
11/25	문희경	10,000
10/26	민지희	50,000
10/26	박경미	400,000
10/30	박경숙	100,000
10/21	박광민	50,000
11/29	박광민	50,000
10/20	박낙범	5,000
11/20	박낙범	5,000
11/25	박명희	20,000
10/20	박미희	10,000
11/20	박미희	10,000
10/29	박상기	10,000
11/30	박상기	10,000
10/21	박상희	10,000
11/23	박상희	10,000
10/29	박선영	10,000
11/30	박선영	10,000
10/2	박승주	50,000
10/21	박영수	1,000,000
10/5	박영식	50,000
11/10	박영신	20,000
10/20	박우돈	10,000
11/20	박우돈	10,000
11/2	박정자	5,000
11/30	박정자	5,000
10/14	박종희	100,000
11/25	박중현(하재남	100,000
10/26	박지민	5,000
11/25	박지민	5,000
10/14	박진원	10,000
10/20	박해령	10,000
11/20	박해령	10,000
11/25	박현순	30,000
11/24	박혜경	100,000
10/26	박화수	17,000
10/5	박화정	30,000
11/5	박화정	30,000
10/5	배명숙	50,000
10/29	배명숙	50,000
11/17	배명숙	100,000
11/6	배상철	100,000
10/16	배인철	20,000
11/16	배인철	20,000
10/8	백경희	10,000
11/6	백경희	10,000
11/12	백근혁	10,000
10/20	백운재	50,000
11/18	백정자	10,000
11/23	변은아	55,000
10/11	북한어린이지원	10,000
10/16	서묘희	30,000
11/16	서묘희	30,000
10/6	서보원	10,000
11/4	서보원	10,000
11/2	서복화	20,000
10/5	서선영	10,000
11/5	서선영	30,000
11/5	서선영	10,000
11/23	석미경	55,000
10/25	성경연	20,000
11/25	성경연	20,000
11/19	성낙규	30,000
10/13	성불하	20,000
11/16	성불하	20,000
10/25	세종약국	20,000
11/1	세종약국	40,000
10/27	손병목	200,000
11/7	손병목	200,000
11/11	손병목	200,000
10/5	손영숙	20,000
11/3	손영숙	20,000
11/25	손요환	10,000
10/13	손인호	143,000
11/5	손형식	10,000
11/10	송석정	100,000
11/1	송순선	17,000
11/20	송순선	50,000
10/6	송영숙후원금	10,000
11/6	송영숙후원금	10,000
11/2	송우석	5,000
11/30	송우석	5,000
10/15	송현정	5,000
11/16	송현정	5,000
10/15	승연희	30,000
11/5	신동현	70,000
10/12	신미화	10,000
11/11	신미화	10,000
10/1	신비로운여인	20,000
11/2	신비로운여인	20,000
11/10	신상섭	330,000
11/12	신승희	30,000
10/5	신영희	20,000
11/2	신영희	20,000
10/5	신은경	10,000
11/4	신은경	10,000
10/9	신은주	30,000
10/30	신현정	10,000
11/30	신현정	10,000
10/12	심미섭	50,000
10/28	심미섭	50,000
10/28	심섭	50,000
10/8	아무개	50,000
11/5	아무개	50,000
11/11	아프리카후원	10,000
10/28	안옥승	5,000
10/30	안효신	10,000
11/30	안효신	10,000
10/30	양나래	10,000
11/30	양나래	10,000
10/29	양복남	50,000
11/23	어윤식	3,000
10/14	여영주	10,000
11/20	여영주	10,000
10/20	연미경	5,000
11/20	연미경	5,000
10/12	오경희	5,000
11/17	오경희	5,000
10/29	오미연	200,000
11/7	오현주	50,000
11/10	우경순	49,000
11/30	우정모	5,000
10/6	유광호	15,000
11/6	유광호	15,000
10/8	유미향	100,000
10/20	유상혁	10,000
11/20	유상혁	10,000
10/30	유영윤	100,000
11/30	유영윤	100,000
10/30	유자일	60,000
11/30	유자일	60,000
11/10	유재윤	10,000
11/20	윤보희	30,000
10/24	윤종근	10,000
11/9	윤효진(북경)	50,000
10/5	이건형	30,000
11/30	이건형	60,000
11/26	이경숙	20,000
10/15	이경희	20,000
11/24	이기갑	40,000
10/1	이남숙	10,000
11/2	이남숙	10,000
10/26	이남지	20,000
11/25	이남지	20,000
10/26	이민영	10,000
11/26	이민영	10,000
11/9	이선경	20,000
10/30	이선희	50,000
11/30	이선희	50,000
11/20	이성용	100,000
10/22	이성욱	10,000

11/23	이성욱	10,000
10/9	이수경	5,000
11/20	이수진	5,000
10/27	이승주	30,000
10/21	이안용	10,000
10/5	이양자	100,000
10/7	이연숙	10,000
11/30	이영례	5,000
10/26	이영선	10,000
11/25	이영선	10,000
10/26	이영애	10,000
11/25	이영애	10,000
11/20	이용문	30,000
10/1	이은희	20,000
11/2	이은희	20,000
10/15	이인식	10,000
11/16	이인식	10,000
11/25	이재창	15,000
11/19	이정래	100,000
10/28	이정여	5,000
11/3	이정연	10,000
10/20	이정옥	10,000
11/20	이정옥	10,000
10/2	이정희	87,000
10/10	이정희	16,000
10/19	이정희	100,000
10/25	이정희	82,000
11/9	이정희	200,000
10/30	이주철	10,000
11/30	이주철	10,000
11/6	이중인	20,000
10/13	이진아	200,000
10/26	이진옥	10,000
10/19	이채학	10,000
11/21	이채학	10,000
10/15	이춘례	30,000
11/16	이춘례	30,000
11/24	이태권	20,000
11/19	이학규	10,000
10/16	이현숙	5,000
10/12	이혜옥	10,000
11/11	이혜옥	10,000
11/16	이혜주	20,000
10/28	이호양	100,000
11/25	이호양	100,000
10/12	이화순	20,000
11/10	이화순	20,000
11/20	임선호	100,000
11/2	임은주	20,000
11/30	임은주	20,000
10/30	임창숙	20,000
11/30	임창숙	20,000
10/7	장경령	20,000
11/3	장경령	20,000
11/30	장경령	20,000
10/6	장옥주	5,000
11/23	장일우	60,000
11/30	장한나	20,000
10/1	장현선	20,000
11/2	장현선	20,000
11/23	전정란	110,000
11/2	전정숙	400,000
10/26	정미경	10,000
11/26	정미경	10,000
10/14	정미숙	3,000
10/28	정민정	10,000
10/2	정순임	30,000
11/27	정순임	30,000
10/6	정여경	100,000
10/1	정연선	5,000
11/2	정연선	5,000
11/2	정연희	10,000
10/31	정영한	50,000
10/5	정은선	10,000
11/3	정은선	10,000
10/29	정인숙	30,000
10/16	정진관	50,000
11/19	정진희	30,000
10/19	정평숙	5,000
11/19	정평숙	5,000
10/26	정향란	10,000
11/25	정향란	10,000
10/15	정현아	10,000
11/16	정현아	10,000
11/20	정혜선	10,000
10/15	조명순	10,000
11/16	조명순	10,000
11/14	조진용	70,000
10/14	조향순	5,000
10/1	주경진	30,000
10/14	진윤정	30,000
11/12	진윤정	30,000
11/17	채진연	10,000
10/5	채현주	10,000
11/16	채현주	10,000
11/28	채현주	10,000
10/12	최명임	5,000
11/10	최명임	5,000
11/6	최부기	100,000
10/26	최순향	30,000
11/25	최순향	30,000
10/30	최영희	20,000
11/16	최옥자	10,000
11/5	최우석	30,000
11/2	최윤아	20,000
11/30	최정미	10,000
11/20	최지영	25,000
11/5	최태연	200,000
10/19	한대륙	15,000
11/19	한대륙	15,000
10/19	한만석	30,000
11/19	한만석	30,000
11/8	한명기	50,000
10/26	한미경	10,000
11/25	한미경	10,000
10/20	한석기	10,000
11/21	한석기	10,000
10/5	한양순	10,000
10/31	한의규	10,000
11/25	한의규	10,000
10/26	한지예	20,000
11/25	한지예	20,000
11/16	한혜민	30,000
11/9	한혜자	20,000
11/10	행복하세요	50,000
11/10	허미화	70,000
10/21	홍유정	3,000,000
11/30	홍진숙	20,000
11/24	황민상외5명	6,000
10/27	황주영	20,000
10/19	후원금	10,000
11/18	후원금	10,000

2009년 한해 동안 JTS에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아트라인, 볼펜 및 문구류 지원
(주)신익, 탁상용 시계 및 벽시계 지원
승일노트, 노트 지원
(주)엔젤악기, 리코더 지원
(주)리피아, 어학학습기지원
아이앤아이, 스켓치북 지원
세일어패럴, 어린이우의 지원
(주)은하수미디어, 어학교재 지원
(주)에스랜드, 연필 및 볼펜 지원
(주)한은통상, 연필지원
(주)아이엠커뮤니케이션, 연필 지원
(주)무한타올, 타올 지원
(주)와이드맵, 세계지도 지원
(주)김영사, 영어교재CD 지원
(주)지노스포츠, 농구공 · 축구공 · 유니폼 지원
(주)우리타올컴퍼니, 수건 지원
줄넘기나라, 줄넘기 줄 지원
진호인터내셔널, 연필깍이 지원
국일나염, 수건인쇄 지원
태광산업, 우산 지원
(주)국제어학연구소출판부, 영어책 지원
트로키 앤 타블렛, 사탕 지원
(주)화흥산업, 지우개 지원
고운아트, 빠레트 · 자 지원
(주)굿필코리아, 연필 지원
신현덕,종합영양제 빈혈약 지원
평화병원재단, 알벤다졸 지원
길성현, 문구류지원
홍성사, 속옷 · 양말지원
금천선원, 생필품 지원
에이스아동복, 아동의류 지원
김성연, 아동의류 지원
이명숙, 의료용 파스 지원
태평양개발, 신발 지원
Roo Shop ,의류지원
우영미, 목도리 지원
김재혁, 여름용 쪼리슬리퍼 지원
무상정사, 의류지원
영우패션, 의류지원
광주광남중학교, 무릎덮개 · 인형지원
V.S & S Corp. Inc, 여름용 티셔츠 지원
최윤희, 신순희 , 사탕 · 문구류 지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즐거운 자원활동

비우는 삶
+ 재능, 특기
+ 시간

인터넷 접수
+ 인터뷰
+ 활동 교육

JTS자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우는 삶

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재능, 특기, 시간으로 돕습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따뜻한 보람이 채워집니다.

해외 자원활동

장기봉사활동으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분야 건축, 농사, 회계, 태권도, 예능교육, 의료, 언어 등

국내 자원활동

한시간 국내봉사가 아이들의 연필, 가방, 교실이 됩니다.
지원 봉사 번역, 녹취, 홈페이지 관리, 영상 제작 및 편집 등 **활동 봉사** 물품정리, 거리캠페인, 나눔저금통 관리 등

우리가 행복해지는 고마운 나눔회원

소박한 삶
+ 원하는 나눔
기금 선택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JTS 나눔 회원이
되셨습니다.

소박한 삶

적게 쓰고 적게 가지는 소박한 생활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JTS나눔 기금 02-587-8995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 돕기 **결핵퇴치** **모자보건** **북한개발** **해외긴급구호**
_참여하신 분들은 전화로 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_나눔회원이 되신 분들은 JTS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_JTS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

해피빈나눔 happylog.naver.com/jtstogether 에서 참여하세요
나눔저금통 작은 동전도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투명한 기금 운영 알기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JTS**재정을 공개합니다.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기금 운영과 지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심승현 작가님의 '파페포포 레인보우'는
다음포털 만화에 연재중입니다.

JTS희망나누미 파페와 포포입니다